

지구촌비전

Vol. 310
2026. 02월호
민족치유 세상변화

02

이달의 메시지
승부수

20

특집
온라인 사역박람회
투게더 캠페인

43

2026 신년축복새벽기도회
2026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간증문

64

예배부
사순절(四旬節)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간의 동행

86

의학상식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7가지 방법



봄비

글 | 연규흠 권사

낮게 아주 낮게
채마밭 귀통이를 적시던 봄비가
지난겨울 온몸으로 강추위를 버텨낸 대파를
가만가만 어루만지고 있었음을
나는 몰랐습니다.

사알살, 사알살
허리를 한껏 낮춘 봄비가
토닥토닥 아기를 다독이는 엄마처럼
여린 새싹을 품고 있었음을
나는 몰랐습니다.

봄비 내리던 그 날
움츠리고 또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며
목련의 봉오리가 속삭이고
등곶길 아이들 얼굴 위로
재잘재잘 봄이 오는 소리가 변질 때
문득,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봄을 담아주시는 손길을,
간절한 소망을
마침내 꽃으로 피워내시는 그분을 **지구촌**

표2 마음으로 읽는 시
봄비

2 이달의 메시지
승부수

6 이달의 칼럼
'종류대로' 키우는 아이들

8 내평생의 말씀
어느 주일 아침

11 목지회 신년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심 받은 공동체

12 목장이야기
'축복의 형제 목장'을 아시나요?

14 미취학지구
2026 미취학지구 겨울축제
'Growing up! 예수님 손잡고

16 대학지구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8 대학지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역을 하며

20 **특집 온라인 사역박람회**
투게더 캠페인 Together Campaign

40 만나고 싶습니다
행복한 동행, 멈추지 않는 사랑의 예배

43 2026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2026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간증문

54 교육칼럼
감사하는 자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다

58 2026 신년기도 세미나
2026 신년기도 세미나 (성막기도, 팔복기도)

60 해외선교부
- 인도네시아 동쪽 땅끝에서

64 예배부
사순절(四旬節)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간의 동행

66 지구촌사회복지재단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힐링복지구독서비스와 함께해 주세요

68 복지선교부
하나님이 맺어 주신 가정, 해브 패밀리

70 피스메이커
- 용서를 배운 시간
- 화평케 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72 지구촌카페
아프니? 나도 아프다

75 이달의 추천도서
오 할레스비 『오 할레스비 기도』

76 과학이야기
1년은 365일: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78 지구촌카페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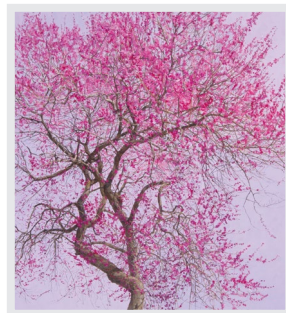
80 이달의 여행지
양재꽃시장에서 미리 온 봄을 만나요

83 지구촌 갤러리
류광일 작가 -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74 식탁에 내리는 단비
제철에 맞는 시금치의 단맛과 새우의 감칠맛이 매력적인
'시금치 새우 오일 파스타'

86 의학상식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7가지 방법

90 지구촌교회 목회 철학



겨울의 끝자락

이은미 권사 | 분당 4지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화의 만개를 보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승부수

역대하 20장 1-13절

김우준 담임목사



조훈현 프로 바둑기사는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승부수는 생각의 집약이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닌 심사숙고한 후 단 하나의 수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승부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1. 주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라

본문 말씀은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군사작전회의를 소집하거나,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칼끝이 남유다를 향한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 삶의 위기 앞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 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누구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먼저 찾다가 뒤늦게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남미 코스타리카 정글에는 토마토 개구리라고 하는 희귀종 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개구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방어체계가 있습니다. 포식자가 개구리를 잡아 먹려고 무는 순간 개구리의 온몸에서 강력한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포식자는 개구리를 삼키지 못하고 다시 뱉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체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 포식자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타이밍이 이와 같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기도로 주님께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분주하게 움직이다 결국 마지막에야 기도를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최선의 방편이지,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최우선적으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평생의 삶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사밧은 눈부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왜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되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 내면 우리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왜 능력의 기도일까요? 그것은 그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 땅에 거주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방향 설정은 내가 합니다. 내 뜻, 욕심, 계획,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

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설정해 주신 방향으로만 달려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본문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호사밧 왕을 실력 없고 무능한 왕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7장 14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당시 여호사밧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 활과 방패를 잡은 자, 싸움을 준비한 자를 모두 더하면 총 백십육만 명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급하게 모은 오합지졸이 아닌 전쟁을 위해 잘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 정도의 정예부대면 연합군이라도 한번 붙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사밧 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훈련되어 있을지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최종 결정권자

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사재인 성사재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피하지만, 그 성사는 하늘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다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편 127:1).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결정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장 탁월한, 유일한 승부수는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무릎으로 승부하고,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설교 바로가기 →

‘종류대로’ 키우는 아이들



강지웅 목사

구리채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와 기질, 성품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작은 것, 큰 것, 아름다운 것, 단조로운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들이 살만한 곳에 두시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드시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하나 보잘것없는 것 없고, 어느 하나 하찮은 것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가 있어야 할 그곳에 두셨음을 늘 생각하게 합니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아이들마다 기질과 성품, 은사들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노하우가 늘어가기보다 새로운 아이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될 때마다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게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아이들을 키울 때 생기는 돌발 변수들에 대하는 마음 자세는 조금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의 성품과 기질, 은사들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며 그 성장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선한 것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랑 첫째를 임신하기 전부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우리 가정은 홈스쿨을 통해 아이들을 키워 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책을 읽으며 나름 홈스쿨 부모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자 막막하여 소개를 통해 홈스쿨 코업 그룹에 들어가 지금까지 8년을 홈스쿨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을 통해 다행히도 첫째는 지금 ‘음악’에 대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이 재능을 어떻게 더 개발시키고 세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사역을 위해 차로 왕복 4-5시간이나 되는 길을 가는 차 안에서 흥얼거리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아내가 듣고는 녹음을 하고 악보로 만들어 아이의 머리와 입으로 내뱉었던 소리들을 눈으로 만들어 보여 주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곡조를, 그다음에는 가사를 붙여서 만들고, 다음에는 바이올린 연주곡을, 다음에는 코업 오케스트라 합창곡을 편곡하고 작곡하기도 하고 양주시 청소년 밴드를 하면서 작은 콘서트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재능이 개발되게 발전하며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다듬어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재미있어하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의 작은 흥얼거림이 이제는 멋진 음악가로서의 꿈을 갖게 되기까지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뚜렷하지는 않지만, 기질과 성품들을 통해 아이들만의 장단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 또한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언제 부모가 되어 본 적 있었나? 그저 우리의 부모 세대를 보고 배운 것이 다인데...’ 그렇기에 시행착오도 많고 한 인간으로서의 바닥도 보게 되면서 부모로서의 성장이 있어야 아이들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가족 하나하나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척하지 아니하며 조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흑과 백’, ‘좌 아니면 우’라는 이분법으로 나누어 동지 아니면 적이 되지만, 하나님은 다름이 분열이 아니라, 더욱 풍성함을 위한 다양함인 것을 저는 시끄럽고 분주하고 모양, 색깔이 제각각인 우리 아이들을 보며 배웁니다. 그런 아이들이 피곤으로 찌들어 잠을 자려고 할 때 달려와 팔과 다리와 등, 어깨, 발을 마사지해 주며 종알종알 거리는 그 소리가 사랑의 멜로디로 들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구촌**

어느 주일 아침



서영주 전도사

분당 시너저지구

계절이 해빙기의 봄 내음을 낼 때면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대전을 오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30대를 곧 앞둔 그 당시, 저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수가 어린이 포함해 30명 남짓한 작은 교회였는데 부 교역자 한 분 없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당시 청년이었던 제게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그 당시 주일을 떠올려보면 이렇습니다. 서서울 영등포역에서 새벽 6시 30분 기차를 타고 약 두 시간을 달려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하면 8시 55분. 9시부터 어린이 교사 회의가 시작되고, 이어 어린이 예배, 찬양대 연습, 대예배, 주방 식사 봉사, 다시 찬양대 연습. 오후 예배 찬양 인도, 목장 모임,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나면 저녁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서둘러 대전역으로 돌아가 9시 30분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도착하면 밤 11시 30분, 노량진 고시원에 도착하면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공립학교로의 이동을 준비하느라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정 무렵 집에 도착하면, 다음 날 아침 7시 20분까지 학교로 출근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근무를 마치고 다시 노량진으로 돌아와 학원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정은 반복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묘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영등포역 6시 30분 기차를 타려면 최소한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30분이나 늦잠을 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주 짧은 순간, ‘오늘은 아프다고 하고 교회에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반 어린이 한 명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돼! 가야지!’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고시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땀박질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과연 탈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

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당시 영등포역은 지하철 승강장과 기차 승강장이 디귤 자 형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계단 위에는 불투명한 플라스틱 가림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기차 승강장까지는 약 60~70미터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동안,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피곤해서 늦잠 잔 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기차를 못 타면, 우리 반 아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다른 반과 합쳐져야 해요. 저 한 사람의 문제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제발 기차를 잡아주세요.” 어쩌면 반헛박 같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이미 6시 24분.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계단을 두세 계단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었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입니다. 뛰어 올라가다 그만 신발이 벗겨져서 몇 계단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 포기할까?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났는지 있는지 계단 불투명 가림막이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신발을 주우러 내려가서 신발을 낚아채듯이 움켜쥐고 다시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차 좀 잡아주세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반대편 기차 승강장 계단을 뛰어 내려오는데, 중간까지 가도 기차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있을까? 떠났을까?’ 시간을 보니 이미 시간은 33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잡아 놓으셨을 거야!’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믿으며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웬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계단 바로 앞에 기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태우느라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른 승강장으로 올라가 승무원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표를 끊은 뒤, 비상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은 6시 35분. 제가 대전으로 교회를 다니던 3년 동안, 영등포발 새벽 기차는 항상 6시 25분에 들어와 6시 30분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연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제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연착되지 않았던 기차, 떠났는지 있는지 보지도 않던 기차를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왔을 때 눈앞에 기차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실체가 된 기적이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차를 잡아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달렸을 때, 신발이 벗겨졌지만, 주저 없이 낚아채서 달렸을 때, 계단을 두세 계단씩 뛰어 최선을 다해 내려왔을 때 기차는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됐습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선포하고 믿을 때 그 보이지 않았던 실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제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당장 무언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기차는 있다! 하나님이 잡아두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오직 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기도였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기차를 잡아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작은 교회를 위한, 그리고 맡겨주는 양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침묵하실 때도 많으신 분이시. 그런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는 빨리, 그리고 선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기적은 나의 유익과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었고, 실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먼저 같은 존재인 나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내가 순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의 일을 시작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대전으로 내려오는 2시간 동안 화장실 옆 기차 통로는 혼자만의 부흥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2시간 내내 차올랐습니다. 기차 창문에 비친 얼굴은 감사와 기쁨으로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두 구절의 말씀은 제 인생의 말씀으로 남았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인생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과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또 한 해를 걸어가려 합니다. **지구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심 받은 공동체



정기만 장로

신임 목회지원회 실장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143:8).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일들로 가득할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지원회
위원들을 대신하여 지구촌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
하심을 믿으며, 2026년을 맞아 저희 목회지원회는 제4대 김우준 담임목사님과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지구촌 공동체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묻고, 묵묵히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지구촌 공동체!

아름다운 동역으로 ‘민족 치유 세상 변화’를 이루어 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구촌**

† 2026년 목회회 신임위원들 †



김이준 장로
4상임위



오의진 권사
1상임위



강효원 안수집사
2상임위

‘축복의 형제 목장’을 아시나요?



박기철 형제

수지4지구 흥천2마을 축복의 형제 목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주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시면서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며,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교회에 발길을 끊게 되었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고난을 경험하며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믿음이 건강하기에 교회 출석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문제 많아…’ 이런 비판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정작 제 안에서 썩어 가는 죄악들은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씀은 멀어졌고, 기도는 부재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믿음은 눈 녹듯 작아져 갔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은 목적이 없는, 죽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집! 언제든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가까운 집을 구하자!’ 그리고 찾은 곳이 바로 지구촌교회 수지 채플 바로 근처의 집입니다. 이사 후 시간이 흘러 아내가 먼저 지구촌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성당을 오래 다녔지만, 원래 개신교였던 저를 위해, 또 전도자로 인해 지구촌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뒤늦게 예배에만 참석했습니다. 오직 예배만 드렸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친구 활동이나 찬양대, 셀활동, 동역 봉사, 선교 이런 것들은 기회도 별로 없었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등록을 하자는 아내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문득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네가 보이는 네 이웃을 멀리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아내의 기도가 쌓여 주님께서 일하셨고,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등록을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두 형제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장모임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아내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진정 사랑하는 우리 이석재 목자님은 원래 다른 목장에 소속되어 있고 지구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이신 동재원 마을장님의 요청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석재 목자님이 결단하시고 <축복의 형제목장>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 강하면서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찾으시는 **문완주 형제님**
-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정준영 형제님**
- 세 아이의 아버지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문영중 형제님**
-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박정석 형제님**
-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이성현 형제님**
-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 가는 우리 목장의 가장 소중한 형제 **이정호 형제님**



네 명으로 시작한 목장에 네 분을 더 보내셔서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퇴근 후 만나는 그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만나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목자님 설교 말씀을 리뷰하고 또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얘기하고, 요즘 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간식과 음료를 함께 먹으며 수다를 떠합니다. 즐겁습니다. 저녁 8시에 모이는데 11시가 되어도 일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이지요. 어떤 형제님은 바쁜 직장으로 10시에 퇴근을 할지라도 참석하십니다.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오시죠. 목장 모임은 저에게 늘 설렘입니다. 기쁨이며 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석재 목자님. 우리 목장원들을 너무나 귀하게 대해 주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통해 깊은 주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형제 목장>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지구촌**

2026 미취학지구 겨울축제 'Growing up! 예수님 손잡고'



이혜복 전도사

미취학지구

2026년 2월, 미취학지구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올해 겨울 축제의 주제는 'Growing up! 예수님 손잡고'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넘어서, 누구와 함께 자라는가, 누구를 통해 자라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개역개정).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취학 아이들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원리입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축제 같은 예수님과 만남'

이번 겨울축제는 2월 한 달 동안 4주간의 주일 축제예배와 주중 1회 목장축제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축제를 통해 예배, 찬양, 말씀, 활동, 게임, 그리고 특별한 교제와 나눔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며, 고백하는 입체적인 신앙 경험을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주일 축제예배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자이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주중 목장축제 모임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스토리로 풀어내어, '예수님

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깊이 다룹니다.

입체적인 신앙 경험: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겨울축제를 시작하는 2월 첫 주 주일에는, 모든 아이들은 포도송이가 그려진 에코백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배와 목장에 참여할 때마다 가방에 하나씩 달리는 '포도알 뱃지'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정 가운데 기쁨과 성취를 눈에 보이게 경험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 암송, 큐티 참여를 통해 받는 '왕 포도알 뱃지'는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줍니다.

주중 목장축제 모임에서는 손바닥 끈끈이 장난감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놀이'를 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재미있는 성경 스토리와 스티커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지며, 나의 이름이 담긴 자석을 만들고 꾸며 보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만져 볼 수 있도록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 말씀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구성했습니다.

은 가족이 함께하는 '목장' 축제

이번 겨울축제의 중요한 특징은 '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목장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만의 신앙 교육을 넘어, 부모 역시 말씀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함께 나누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위한 신앙 점검 질문과 적용, 도전과 다짐을 통해 가정이 다시 한번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자리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겨울축제를 통해 미취학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이러한 고백이 아이들의 입술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로서 'Growing up!' 자라 가고, 사랑과 순종, 기쁨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구촌**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예지 엘더

수지대학지구

안녕하세요!

수지대학지구 엘더 목사 오예지입니다. ‘스텝업이라니!’라는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오래 있었구나!’ 싶어 살짝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여전히 사용해 오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마무리 소감을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2016년 처음 대학지구에 발을 디딘 이후, 부목자에서 엘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이 단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데에만 익숙한 ‘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제가 부목자에서 엘더까지 오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변 동역자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원종희 목사님, 김은영 전도사님 등 저를 붙들어 세워 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다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연단되어야 할 부분들은 많지만, 그런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시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캠퍼스의 영육 부흥을 위한 질서 확립 및 여러가지 일들과 엄마의 간질성 육종암 판정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저는 “왜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면서 조금은 버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쩌면 가장 이해되지 않는 타이밍에 조용준 목사님께서 저를 캠퍼스로 부르셨습니다. 당황도 했고, 왜 이 시점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 목장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엘더를 하면서도 고집도 세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부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엘더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때로는 울고 웃으며 서로를 붙들어 준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느 축복보다도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 됨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엘더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맨 앞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알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 고집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깎여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별거 아닌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 자리에 반드시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각기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진 우리가 대학지구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깊이 경험했습니다. 함께 스텝업한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남아 계신 분들에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신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더 뜨겁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자리로 올라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소감은 일부러 간단하게 전합니다. 이제 저는 엘더 목사 직분에서 내려오지만, 제 시간과 마음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캠퍼스 생활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주세요. 맛있는 식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일들을 기쁘게 나누겠습니다. 함께 동역한 수지대학지구 모든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엘더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 주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며 이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따뜻한 겨울나기」사역을 하며



최병찬 엘더

분당 3캠퍼스

저희는 김용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화성 세계로교회로 향했습니다. 파웬 예배를 통해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두 미완성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는 교회 근처에서 'worldwide'라는 단어에 이끌려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하게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버거울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박스 하나하나에는 파스와 핫팩 같은 소소한 물품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이상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크지 않은 물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은 섬김을 통해 누군가는 잠시나마 몸의 피로를 덜고, 또 누군가는 자신을 기억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온기를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 저 또한 미완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작은 순종과 섬김이 모여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



송구영신 예배, 신년감사 예배

2025년 12월 31일 오후 9시와 11시에 분당과 수지, 양 채플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은혜로운 예배는 주의 만찬과 더불어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찬양대의 '할렐루야'로 새해를 맞는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전 8시, 10시, 12시에는 양채플에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금년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었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026년,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촌**

특집

온라인 사역박람회

투게더 캠페인

Together Campaign

지구촌교회는 구경꾼 없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의 제자로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2025년 11월 23일(주일)부터 12월 7일(주일)까지 3주간 온라인 사역박람회 ‘투게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우준 담임목사님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교회는 관람객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지구촌교회는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섬김과 봉사는 선택이 아닌 제자의 삶에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적인 신앙의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청지기 부흥회를 통해 안내해 오던 ‘1인 1봉사’ 사역 참여를 한 단계 확장한 사역으로,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각 부서의 약 48개 팀 사역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를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49명 수준에 머물렀던 사역 신청은 이번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약 258명의 성도가 결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담과 안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실제 사역 헌신을 결정하는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지구촌교회가 “모든 성도가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로 결단하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 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보여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순종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구촌교회가 주님과 함께 섬기는 기쁨과 영광을 삶으로 경험하는 공동체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이제는 유람선에서 항공모함으로 갈아타야할 때

이해윤B | 역사자료문서선교팀



살림.

때는 바야흐로 작년 11월경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평소 온라인예배보다는 출석예배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날은 몸이 아파 교회출석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화면에 유람선과 항공모함을 띄우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냐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출석예배였다면 예배 후 집에 와서 또 가족들을 챙기고 하느라 지구촌교회 홈페이지를 곧바로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텐데 그때는 컴퓨터 앞인지라 예배 후 곧바로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투게더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인지라 사역 팀들이 홈페이지에 바로 게재되어 있었고, 저는 첫 화면 중 <역사자료문서선교팀>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첫 화면 뒤에도, 뒤에 많은 사역 팀들이 있었는데 성격이 급한 탓에 전체를 다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예전에 하던 일이 편집 관련 일이니 '지구촌비전'을 발간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첫 모임 이후 지금은 <역사자료문서선교팀>에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시간을 쏟은 것에 애정을 가지기 마련인가 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지구촌비전이 나왔다'하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면 '아 그렇구나'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한 달에 3-4번 정도지만 함께 모여 교정도 보고 편집회의를 한 이후 받아 보는 이 잡지에 대한 애정도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교회를 위해 주야로 여러 분야에서 봉사로 애쓰시는 다른 성도분들의 마음도 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필요성을 잘 알았기에 믿지 않는 남편이 제가 오전에는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오후에도 교회봉사모임을 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주일 오후에 자리를 비움으로써 남편 역시 하루종일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으로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희도 언젠가 부부가 함께 <역사자료문서선교팀>에 합류하게 될 날을 꿈꿔 봅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토요일 새벽 6시 30분, 가평으로 향하는 기적

오남순A 권사 | 필그림 천로역정 순례의 길



2018년 7월부터 저의 토요일은, 평범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저는 어김없이 필그림하우스가 위치한 가평을 향해 출발해요. 그곳에는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귀한 나침반이 되어주는 존 번연의 고전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따라, '천로역정 순례길'이 가평 필그림하우스에 마련되었거든요. 천로역정 순례길에서 순례자들을 인도하고, 저녁 8시쯤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제가, 이른 새벽부터 시간을 쪼개서 멀리 가평까지 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가족들이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평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맑고 상쾌한 청정 공기가 저를 맞아줍니다. 심호흡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얼굴에 기쁨 가득한 미소를 장착하고 주차장에서 기다리시는 장로님 차로 이동합니다. 맑고 해맑은 웃음을 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끝없는 엉뚱한 질문으로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들이 이어져 지쳐가는 나의 영과 육이 정화되는 순간이죠. 이 기적 같은 순례의 길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동행'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른 새벽부터 대단하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봉사가 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할 수 있다며 해보라는 남편의 적극적인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첫발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면,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엄마가 걱정된다며 조심하라고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기꺼이 가게와 가사를 헌신적으로 맡아주고 있는 동생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봉사는 결코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례길 봉사를 함께 걸어주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순례길 인도 첫 경험은 어쩌나 두렵고 긴장되던지요. 혹시 내용을 잊어버리면 어쩌나 노심

초사하느라 각 처소에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몇주가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이 길의 진정한 인도자는 주님이시고, 저는 이 길을 통해 매주 주님 앞에 재헌신을 하고 재충전을 받고 있다는 것어요. 매주 순례자들과 함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해 천성에 이르는 이 길을 완주할 때마다, 제 안의 예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례길 끝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감격을 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보이지만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입니다.



이제는 순례길을 출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압송하여 전하는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순례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해주세요. 순례자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해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처럼 시선이 ‘나의 실수’에서 ‘주님의 도구’로 옮겨지면서, 순례길 인도 봉사는 저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자유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할 때는 얼굴이 굳어 있던 분들이 천성에서 활짝 웃으며 ‘은혜로운 순례길이었습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전해줄 때,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속으로는 기뻐 어쩔 줄 모른답니다.

가평 필그림의 순례길은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닙니다. 매주 같은 길을 걸어도, 나의 상황에 따라 처소마다 주시는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을 통해 놀라운 감동을 목격해요. 한번은 부모님과 함께 온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조형물 하나하나를 요리조리 살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어린이는 <천로역정> 책을 수십 번이나 읽고 왔더군요. 이처럼 순례길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살아 있는 체험의 장입니다. 특히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이 벗겨지는 자유함을 누리며 환하게 웃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때면, 인도자인 저도 덩달아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여전히 짐을 내려놓지 못해 표정이 어두운 분들을 볼 때면 간절한 중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순례길 봉사를 하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번은 낯익은 얼굴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저희 가게에 오시는 아이스크림 사장님이셨습니다. 늘 말없이 아이스크림 통만 채워주고 가시던 분을 그곳에서 뵈니 얼마나 반갑고 신기하던지요. 후에 그 사장님께서 “순례길이 정말 좋았고,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셨을 때, 이 봉사가 선한 영향력으로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끔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무엇이 나를 매주 새벽 가평으로 이끄는가?’ 대답은 늘 한결 같습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여정에 동행하며 그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복되는 제 자신의 영혼 때문입니다.

인생은 순례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평 필그림하우스의 천로역정 순례길을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길을 찾는 모든 순례자를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 이 길을 직접 걸어 보세요. 짐이 벗겨지는 십자가 앞에서 크게 웃어 보기도 하고, 천성에서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 부르면서 천국 소망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경험해 보세요 **지구촌**

남편과 함께 군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선아A | 국내선교부 군선교팀



이번 온라인 사역 박람회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군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릴때의 은혜로움을 기억하여 국내선교부 군선교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2월 1일부터 군선교를 시작합니다. 복약과 정릉에 위치한 진지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릴 때 장병들에게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모르는 장병들과 서로 나눌 때 그 기쁨 충만을 기대합니다. **지구촌**

부르심의 자리에서 발견한 일상의 은혜

김호영 마을장 | 예배안내사역팀



작고 담백한 순종의 시작

경기대학교 채플에서 예배 안내 사역을 맡은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토록 오랜 시간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잘하자”라는 평소의 소신대로 작은 순종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 생각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은혜의 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의 문을 여는 기쁨

예배 안내는 단순히 사람을 맞이하는 행위를 넘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을 여는 소중한 직무를 깨닫습니다. 캠퍼스라는 열린 공간에서 지인들을 예배로 안내하고, 그들이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안내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히 저희 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이 사역이 한 영혼과 가정을 세우는 통로가 됨을 실감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준 거룩한 책임감

봉사의 여정이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지쳐 물러서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말씀과 찬양을 통한 회복이 더 빨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는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늘 봉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섬김이 선물한 삶의 질서

14년의 사역은 제 신앙을 단단히 세우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위해 주말의 일정을 절제하며 삶의 리듬을 조절하게 되었고, 이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매주 반복되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의 평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사역 팀원들과 맺어진 영적 유대감은 “보라 형

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편 133:1)”의 고백처럼 제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봉사, 은혜의 자리로의 초대

아직 교회 봉사를 망설이는 성도가 있다면,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으로 시작한 섬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삶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14년 전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를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

투게더 캠페인! 저도 동참했어요

전신미A | 탐방안내사역팀



아는 권사님이 저에게 탐방안내사역팀에 함께했으면 좋겠다면서 “기도해보실래요?”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함께 할게요~”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사 문제, 자격증 취득시험 일정 등 분주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송구함이 있던 중 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즉시 말씀하신 권사님께 “저 함께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팀을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살림」 서로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이 말의 의미처럼 한 분 한 분 팀원분들의 평안한 모습과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내하시는 모습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구촌**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립니다

조승문A | 해외선교부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필리핀에서 온 젊은 전도사님에게 잘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몇 번 초대도 했고, 한번은 저와 둘이 '반지의 제왕'을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전도사님이 아마 영화관 자체가 처음인지 너무 흥분하셔서 자꾸 탄성을 크게 내는 바람에 제가 민망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며 잊고 지내다, 저희 가족이 해외 생활을 하는 동안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현지인 가족을 통해 사랑의 선순환을 체험하였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10대엔 뜨거운 신앙생활도 해 보고, 20대엔 선교단체에서 이성적이고 냉철한 고민도 해본 상태에서 맞이한 30대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좋은 핑곗거리가 많았습니다. 가족과 일로 이미 바쁘고 비슷한 것 다 해 봤는데 별것 없더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율법적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 이치에도 맞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분당으로 이사오며 큰 교회를 택한 것도, 적당히 예배당 중간쯤에 앉기 좋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바쁘고 힘드신 분들이 목자나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이젠 시대가 변했고 공동체 자체의 부작용도 많으니 적당히 리액션을 잘하는 '관람객'으로 남는 게 저와 가족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공동체에서 지지고 묶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저를 신앙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의료인으로서의 달란트와 외국인에 대한 마음을 놓고 방향을 정하다 보니 해외선교부 의료선교팀과 글로벌목장 어린이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마음가짐은, 대단한 기여를 할 포부를 갖기보다는, 이웃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기도해주는 기본이나 지키자는 마음입니다. 이웃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시도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 깨닫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지구촌**

용기 내어 시작한 봉사, 불신 남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김연수K | 차량사역팀



교회라면 무조건 거부하던 남편의 눈을 피해, 갓 돌 지난 딸아이를 안고 처음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의 심기를 건드려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될까 늘 노심초사하며 소극적으로 지내던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딱 한 시간,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이 제 최선의 주일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예배와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교육훈련을 받았지만 예배드리는 것조차 녹록치 않았기에 주일 봉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에도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구목사님으로부터 사역봉사 권면을 받았습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차마 말로 꺼내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달리, 제 요청에 수궁이 갔는지 남편은 24주간의 주일 사역봉사를 흔쾌히 허락해주었습니다.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며 남편의 이해를 구했던 저에게, 남편의 수락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전전긍긍하며 남편에게 다가가지 못 했던 것 역시 그저 제 안의 두려움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필수 봉사 과정의 하나인 차량사역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2주간은 어설피게 지하 주차장에서 빨간 경광등을 흔들며 들릴까 말까 하는 작고 수줍은 목소리로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쑥스러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고된 시간이었지만, 점점 마지못해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주일을 더 기쁘게 돕고 싶다는 즐거운 고민의 시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3개월간의 차량사역 봉사를 마칠 즈음엔 이 팀에서 계속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힘든 봉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겸손히 섬겨 오신 기존 팀원분들의 모습에 도전받았고, 저도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계절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도 즐거웠고, 더 안전하고 빠른 안내를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도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

꿈 성도들의 불평불만과 항의를 듣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괴롭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게 봉사할수록 기쁨도 즐거움도 더해졌습니다. 다시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지만, 이번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지금까지 5년째 즐겁게 차량사역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언젠가 딸아이를 교회에 내려주고 가면서 그는 하나 없는 한여름 땀별 아래에서 차량 안내를 하는 저를 보았나 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 하느냐”면서 의아해하며 물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왜 그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하는지, 과연 도움이 되긴 하나?”며 미심쩍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남편과 다 나눌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마다 기쁘게 봉사하는 저를 보면서 교회라는 곳,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한다는 점만으로도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반대했던 남편의 구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용기가 생겨납니다.

봉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미처 다 몰랐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내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섬김의 손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여태까지 받기만 했던 지난 시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 인생의 주인 하나님과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주일 봉사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봉사를 머뭇거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상황이 해결되기만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은혜를 꼭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구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발견한 나의 천국, 유년촌 목자의 기록

천석표 | 유년촌 목자



지구촌교회 유년촌 마을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대여섯 분의 전도사님이 바뀌었고,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유년촌 목자로 헌신하게 된 것은 순전히 아내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이미 유년촌에서 수년째 사역하며 아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 온 아내는, 서툴고 낯설어하던 제게 세심하게 조언해 주며 이끌어주었습니다. 아내를 통로 삼아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생경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와 분주함 속에 섞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무척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다잡아 준 것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1-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의 소란함과 분주함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가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할 천국의 모습이었던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가 아이들처럼 순수해져야 한다는 깨달음은 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소음으로만 들렸던 아이들의 말장난과 웃음소리가 세상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한 울림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역동적인 몸짓은 바다보다 넓고 들판보다 푸른 생명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작은 몸집 안에 우주보다 큰 꿈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순간, 유년층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닌 경이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 기간 중 특히 기억에 깊이 남은 이들은 마음에 상처나 장애가 있어 돌봄이 절실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침묵하여 마음을 읽기 어려웠고, 때로는 통제하기 힘들 만큼 분출하는 에너지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만나러 가는 주일이면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는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이 아이가 저와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빛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비 내리던 어느 여름 달란트 축제 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물놀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밖으로 뛰쳐나갔던 한 아이를 붙잡고 함께 비를 맞으며, 눈물로 설득했던 시간, 결국 아이의 손을 잡고 풀장에 들어가 함께 웃으며 물장난을 하던 그 찰나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이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시기에는 화면 너머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옛되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자라 간혹 교회 복도에서 마주치곤 합니다. 비록 아이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지라도,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자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정든 유년층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사역 봉사로 향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를 10년 가까이 긴 시간동안 목자로 세워주신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빈자리에는 또 다른 목자님이 오셔서 신앙의 씨앗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언젠가 찬란한 꽃을 피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처음의 불안함을 극복하고 깨달은 사실은, 제가 머물던 유년층이 바로 천국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구촌**

관람객에서 기도의 자리로

하미정B | 경배와 찬양팀



11월 30일 주일 “관람객 없는 교회”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는 적지 않은데 ‘아이들을 챙기며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그동안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관람객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마음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는 나도 섬김의 자리에서 서야겠다는 결단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던 주일 찬양대였습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남편은 “아이들 픽업은 내가 교회에 가서 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큰 아이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렇게 저는 금요심야기도회 콰이어팀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직장인의 즐거움인 불금을 포기하고 교회로 향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섬김은 해야겠지만 너무 책임이 크고 힘든 자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달란트 중에서 비교적 편하다고 여겨지는 자리를 선택한 것이 사실은 제 계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금요 콰이어에는 4주의 수습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주, 퇴근 후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대신하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맞아주셨지만 마음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때 저보다 한 주 먼저 온 수습 선배님이 계셔서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과 찬양으로만 은혜를 받아왔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었지만 깊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와 기도를 멋지게 드리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부러워만 하며 뒤로 물러서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수습 첫 날, 기도 시간에 제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환우들을 위해

올며 기도하고 있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기도가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기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마을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도 기도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 콰이어에 오게 된 것은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주일 예배에 겨우 참석하던 저를 주일 찬양대가 아니라 금요철야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목장 식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특방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꼭 금요철야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뻐서, 자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주에도 금요 콰이어에 나아가며 ‘이번 주에도 내가 기도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이 무색하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동안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었지만 기도로 은혜받지 못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자리였고 제 신앙의 성장을 위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자리였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방진숙A | 국내선교부 국내사역팀



국내선교 교도소 상담사역의 문을 두드린 후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또 재소자들을 만나서 하는 사역이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들 속에 막연함이 주는 그런 조심스러움과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는 나는 신실한 믿음의 열정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히 주님 주시는 큰 비전을 품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온전히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난 분명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무래도 나는 마음 발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역량도 안되고 등등등 내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통화하게 될 줄 몰랐던 전도사님께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어떻게 투게더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콜링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이 봉사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등등 관련된 글을 부탁하시려고 연락을 주신 것이었다. 연락을 받고 주저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락을 주셔서 감사했다. 사실 투게더캠페인에 참여한 이유는 “한 명의 관람객 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기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자”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고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 해 해왔었기 때문에 국내선교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지만 사역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대략 사역 내용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교도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라고 하셨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의 한 기도제목이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는데 다시 연락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도제목을 들려주셨을 때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의 부담감은 여전했다. 혹여라도 기존에 믿음의 헌신과 수고로 여러 해 사역에 참여하시며 수고해 오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재소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드러나서 오히려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전심으로 이해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인지 내 안에 복음 없는 선함만 있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은 아닌지……

나의 환경 등등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 선택이 쉽지 않았다. 시작하더라도 지속적인 믿음의 열정으로 계속 달릴 수 있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나약함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전화를 끊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해지기를 기도드렸다. 너무나 작아서 찾으려고 애써 보아도 보이지 않는 작은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의 시작이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본다. **지구촌**

투게더 캠페인을 통해 느껴 가는 화음의 신비

이우남시 | 예배부(주영광 찬양대)



지구촌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늘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포된 ‘투게더 캠페인’은 저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캠페인에 기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찬양은 삶의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 중 가장 귀한 것이 ‘찬양하는 마음’이기에, 내가 가장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주저 없이 찬양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그 거룩한 통로의 한 조각이 되고 싶어 이 팀을 지원했습니다. 혼자 부를 때는 느끼지 못했던 ‘화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완성될 때, 마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듯한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연습 시간에는 세상의 걱정을 잊고 오직 가사에 집중하며 제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부족한 목소리지만 저의 찬양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배의 자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매 주일 드러지는 찬양이 익숙함에 젓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지구촌

탈북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곽은정B | 국내선교부 통일선교팀



작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생을 대상으로 도시 문화 생활체험 교육 봉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작은 섬김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탈북민 사역은 오히려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 마음 한편에 탈북민들을 향한 깊은 눈물과 관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김우준 담임목사님께서 '투게더 캠페인'을 알리시며 1인 1사역을 강조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탈북민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국내선교부 통일선교팀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통일비전모임을 통해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감사,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심을 느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 또한 깊이 느끼며, 이 소중한 사역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 감동입니다

김현지AJ | 주영광 찬양대



목사님께서 '더 이상 교회의 관람객이 되지 말고 모두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신 말씀에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교육목자와 찬양대 중 어느 부서를 섬길까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찬양을 제일 기뻐 받으신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며 찬양드릴 때보다, 찬양대석에서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찬양할 때 더 큰 감동이 느껴지고 부족한

제 목소리가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다는 사실 자체가 큰 감동이자 보람입니다. **지구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권경민D | 글로벌목장 English Youth Service



대학지구에서 청년지구로 스텝업을 하며 대학지구 부목자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대해 기도하던 중 담임목사님께서 1인 1사역에 대해 강조하시며 투게더 캠페인을 말씀해주셨고 평소 관심 있던 글로벌목장 청소년부 사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지구에서 부목자로 섬기며 많은 즐거움을 느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며 목장섬김을 통해 얻은 은혜들이 풍성해 이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영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영어예배를 섬기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중 파워웬스데이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외부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으며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후보에서 본 글로벌목장 청소년부 목자 모집광고가 생각나 영어를 사용해 복음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지금의 자리에 대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글로벌목장 청소년부 부목자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이지만 앞으로 부목자로 섬기며 심적으로 많이 지친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때에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은혜인지를 알려주고 이를 함께하며 저도 섬김에서의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로로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 과정에서 주님께 구했던 기도들,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주님의 이끄심을 공유하며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능력주시며 앞으로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찬양대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경숙D 권사 | 수지시니어지구 호산나 찬양대



2025 청지기 부흥회, “투게더 캠페인” 마치 학생이 된 것 같은 설렘과 집중력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주님의 콜링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 싹텄습니다. 지구촌교회의 청지기로서 어느 자리에서든, 무엇이 라도 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망설임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스쳤습니다.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 찬양대에 서고 싶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이제는 시니어로 가야 할 나이인데... 그래, 시니어 찬양대에서 섬겨야겠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막상 신청하고 나니 오랫동안 찬양대 사역을 떠나 있었던 터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혼자 발성 연습을 해 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마음처럼 고음이 올라가지도 않고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함께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천천히 배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성실함으로 참여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막혔던 목소리도 터지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울릴 수 있게 도와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지구촌**

인생의 해법을 찾아 준 성경

강임순A 집사 | 상담교육팀



김우준 담임목사님께서 모든 성도가 함께 1인 1봉사 하면서 관람객 없는 교회, 섬기기를 즐기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자기대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거듭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키기로 결단했고, 첫 번째 순종과 실천이 투게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의 큰 해법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늘 철학과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었고, 부끄럽고 미련하게 그 책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학문은 나의 상처를 해결해 주거나 나를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슴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주셨고 기도와 성령님으로 인해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자기대면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방법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숙해가는 길임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자기대면 수업에서 받았기에 그 감사함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용기내서 자원했습니다.

상담교육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섬김을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세 아이들과 남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고 굳건히 세워지길 훈련하겠습니다. **지구촌**

행복한 동행, 멈추지 않는 사랑의 예배

— 16년 동안 지체장애인과 함께 걸어온 김신욱 장로의 섬김 이야기 —

편집부 연구흙, 오도연, 이효자 기자



행복한 동행은 누군가를 대신해 걸어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같은 속도로 걸어가는 것 이리라. 교회 문턱을 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지체장애인을 위해 예배의 길을 열어 온 섬김이 어느새 16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 한복판,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이어지는 순종을 통해 예배를 향한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김신욱 장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지체장애인을 모시고 예배를 돕는 섬김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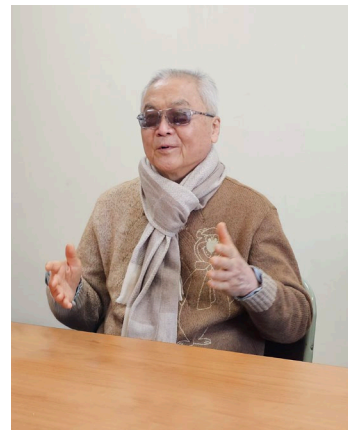
교회 안에서의 장애인 봉사사역을 하던 중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지체장애인이 있다는 사회복지부의 연락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만나게 된 S 성도님은 2010년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를 입었고, 혼자 힘으로는 교회에 오고 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체 장애뿐 아니라 인지 장애도 함께 있어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와야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 도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사,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 연수를 직접 이수하며 더욱 전문적으로 섬기고자 힘썼습니다.

Q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섬김을 멈추지 않게 한 가장 큰 이유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방식은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많았지만,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며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라고 말해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들이 오늘까지 이 섬김을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78세로 연세가 적지 않으신 만큼 섬김의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체장애인 특유의 강한 자존심으로 인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심을 알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성도님의 마음이 열리고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S 성도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은 늘 마음에 남는 기도 제목이자 부담이 되었습니다. S 성도님의 아내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에 여러 차례 블레싱 축제 때 초청했지만 완곡히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S 성도님의 교회 출석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기에 감사했고 힘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진심으로 그 성도님을 섬기다 보니 지금은 종교를 넘어 가정의 문제까지 서로 의논할 정도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Q 사모님이신 양영숙 권사님과 자녀들은 장로님의 섬김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장로님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느끼십니까?

제가 일이 있어 봉사의 자리를 비울 때면 저를 대신하여 아내인 양영숙 권사가 대신 장애인을 돌보며 S 성도님의 예배를 돕는 봉사를 이어갔고, 자녀들 또한 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런 모습을 보며 특히 큰아들은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섬김이 자녀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전도사님의 소개로 찾은 기도원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장애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된다는 것과 봉사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교회 안에서 장애인 봉사와 섬김을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봉사를 통해 비장애인이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당연히 하게 여겼던 일상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Q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는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S 성도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저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지구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조용히 예배의 길을 열어 주는 한 사람의 섬김, 그 낮은 발걸음 위에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의 은혜처럼 따사로운 햇살이 겨울 한파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2026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겨 드리며 '우리 다시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2026 신년 축복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5일(월)부터 1월 10일(토)까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는 지구촌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다 개척한 동역교회 목사님 6분이 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어 더욱 뜻깊은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안용호 목사(기흥지구촌교회 원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화요일 최성균 목사(동백지구촌교회 담임)	중보기도자의 사명
수요일 국진호 목사(동탄지구촌교회 담임)	다시 새롭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열쇠
목요일 조상훈 목사(만방샘목장교회 담임)	은잔의 비밀
금요일 이재현 목사(온사랑지구촌교회 담임)	세상 속 가정교회의 비전
토요일 김인환 목사(더라이프지구촌교회 담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성도들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구촌**

한 해의 십일조로 새벽기도를 드리며, 빌레몬 가정을 꿈꾸다.



조은정O

분당 15지구 여호수아 마을 하늘제자 목장

저희 가정은 특별 새벽기도기간이 되면 늘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서로를 독려하며 일주일을 보냅니다. 가끔은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딸아이가 “무조건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완강하게 말하기에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고 교회로 향합니다. 새벽 운전은 늘 긴장되고 두렵지만, 차 안에서 딸아 이와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피곤한 날에는 찬양을 들으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예배 후에는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며 하루의 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벽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26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기도회였습니다.

한 해의 십일조

신년특별새벽기도를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의 십일조’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십분의 일을 드리는 것만의 의미를 넘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며, 이 한 해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뜻과 방향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뜻과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내내 “2026년은 제 것도 저희 가정의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빌레몬 가정을 꿈꾸다

저희 가정은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홈스쿨을 하고

있는 7년 차 홈스쿨 가정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그동안의 홈스쿨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데 올해는 유독 어떻게 방향과 계획을 세워야할지 막막함이 컸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던 중,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온전히 이끄시고 친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었고, 걱정과 불안은 기대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해 홈스쿨을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금요일 이재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빌레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분명히 잡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상 속에서 가정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빌레몬 가정과 같이 세우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가정 안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사랑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뜻과 방향을 굳게 붙들고 가정이 교회가 되며, 온 가족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빌레몬 가정이 되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지구촌



이런 나를, 또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이은영 BF

수지 4지구 S글로리아 24목장

한결같이 사랑만 주고 세상을 떠난 작은아들 한결이가 병상에 누워 지낼 때, 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힘들어도 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특별 새벽 예배. 작년부터는 남편과 나 그리고 큰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어나기 힘든 새벽 시간에 굳이 자겠다는 중학생 아들을 깨우며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어제든 오늘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했는데, 맑은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앉아있었던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나를 더 깊이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라... 받은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못난 생각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사랑한다 하십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마음 곧게 받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흠 없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이가 40 중반을 넘어가면서 세상에 대한 생각과 삶과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던 요즘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번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정리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면 '사랑해야 할 이유와 조건'을 찾고 있었던 부족한 내 마음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며, 그 용서를 삶으로 증명해 내라고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이기에 귀를 닫고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사랑해야 할 조건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했던 부족했던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머물며 자꾸 미워하지 말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애써서라도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였다고.

언제든 '아버지! 주여!' 하고 부를 수 있고,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조용히 혹은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가장 큰 은혜였다고. 나에게 언제나 사랑 그 자체가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주고 갔던 작은아들을 가슴에 묻지만 말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딱 붙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시구촌**



온 가족이 함께한 은혜의 6일



서지민E 목사

분당6지구 5만나7목장

2026년 새해를 여는 신년축복 특별새벽기도회, “우리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 앞에 저희 가족은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직 깊은 잠에 빠진 두 아이를 깨워 옷을 입히고 성전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도착한 성전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는 저희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들이 영아촌 시절이었을 때부터 새벽예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울거나 보챌까 봐 본당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저 본당 의자에 앉아 온전히 예배드릴 날이 오겠지’라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 된 아들 한준이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딸 하영이와 엄마, 아빠가 나란히 본당 자리에 앉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첫째가 예배 중에 속삭이며 “엄마 이상해요. 눈이 계속 감겨요”라고 귀엽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설교내용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본당의 기도자가 된 것 자체가 저희 가정에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새벽예배의 자리에 졸음을 이겨 내고 완주해 준 한준이와 하영이가 대견하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원동력 삼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 주신 목사님들과 추운데 차량봉사 해 주신 교역자님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새벽예배를 통해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 하나님



김서하C
분당 어린이지구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구촌교회에 다녔고 아기 때부터 새벽예배에 나갔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새벽예배 설교 시간에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신년 새벽예배 시간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가족이 건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벽예배는 더욱 열심히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등등 수많은 질문을 엄마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의 답은 새벽예배 마지막 날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통해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질문의 답은 실제로 이번 새벽예배 기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잘못으로 엄마에게 혼났던 날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눈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엄마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 일로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예배 때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과 ‘예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께 꼭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항상 함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어린이 지구 예배 시간에 설교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나

의 목자시니 겉모습만 짝 찬 그리스도인이 아닌 속이 짝 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세요.’, ‘교회를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새벽예배에서는 의문이 드는 생각, 궁금증들을 말씀으로 실제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무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지구촌**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기현A
수지 소년1마을

제가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2026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틀 정도는 학교 방학 전이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방학이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참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친구 문제로 속상한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새 주제인 ‘우리 다시 새롭게’라는 말씀처럼, 올해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

첫날 말씀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안용호 목사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제 속상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저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생각에 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수요일 국진호 목사님 말씀 중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커다란 문제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혼자 고민하고 화를 내며 속상한 마음에만 더 집중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회나 속상함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뜻했던 사랑과 결단

특히 매일 예배 시작 때마다 김우준 담임목사님께서 어린이들을 향해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힘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수지9지구 정기성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을 때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2026년, 나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2026년이 어떤 한 해가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인 6학년이 되는데,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빠져, 더 친해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멋진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고백



조은지

청년지구 엘리야촌 주하목장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 시편119:105-106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하기보단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심이 감사했습니다. 큰 다짐도 고민도 걱정도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며 현장 새벽예배에 출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 아침에 깨워 주는 동역자를 붙여 주셨고, 친구의 전화에 별떡 일어나 6일 동안 현장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매일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나온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2025년은 감사한 일이 더 많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지켜보게 하셨고 제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동역자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기다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느껴졌고, 하나

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토요일 새벽예배를 통해, 그 고백조차 저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제 삶의 소망은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며, 목숨을 내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사용하시고, 작은 고난들을 허락하시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예수님 닮은 기도를 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전에, 저의 소망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임을 알지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제 힘만으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오겠지만, 저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순간임을 잊지 않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유일한 소망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2026 교육동행(두 번째 이야기)

감사하는 자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없다



차길영A 집사

분당12지구, 세븐에듀 대표

우리는 보통 특별한 일이 생겨야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에 어떤 특별하게 좋은 일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는 이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면 감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감사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에 미리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려 드리는 작은 감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들어쓰십』이라는 책을 쓰신 안찬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용맹한 마사이족 24개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을 섬기며, 하나님의 산 역사를 맛봅니다.

마사이 지역에서 가장 힘든 일은 건기에 소를 몰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건기는 대략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4월부터는 물과 풀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사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식구가 다 같이 떠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각 집안의 대표들이 논의해서 공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추장이 몇 사람들과 함께 소들을 이끌고 물이 있는 킬리만자로산으로 갔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며 그들을 기도로 전송했고, 뒤이어 수백 마리의 소 떼가 함께 이동하는 장관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 말쯤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들도 너무 지쳐 있었고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많은 소들이 죽었습니다. 추장의 소가 모두 153마리였는데 그곳에서 무려 91마리가 죽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추장의 소가 많이 죽었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추장이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 믿으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부족민들에게 “너희들 맘대로 해라”라고 한다면 모두 추장을 따를 것만 같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추장을 지켜 주옵소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전처럼 신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를 잃어 침뚫한 분위기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 찬양을 하는데, 추장은 여전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추장이 흰 소를 몰고 교회에 온 것입니다. 흰 소는 마사이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보통 축제 때나 제사를 지낼 때에 잡습니다.



선교사님은 추장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부족민들은 수근거렸고, 선교사님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추장은 앞에 나서자마자 “할렐루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감사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 소를 91마리나 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야속했는데 계속해서 죽어 가는 소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91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려면 153마리 전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해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이 추장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곧,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상황 그 너머를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현실의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자유함은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감사하는 자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촌**

차길영

소속 세브에듀(대표), 수학싸부(대표), 차수학(세븐앤컴퍼니 대표)

학력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 박사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 석사

경력 세브에듀 대표 / 차수학 세븐앤컴퍼니 대표 / EBS 수학 강사

성경적인 갈등 관리

피스메이커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은 화평을 이루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 5:9

주일반 3. 8(주일) 10주간, 오후 2시

목요반 3. 12(목) 10주간, 오전 10시

- 강 사 이정하 목사, 정기성 목사
- 장 소 주일반 분당채플 804호 / 목요반 분당채플 804호
- 모집인원 주일반 20명 / 목요반 10명
- 등 록 수지 · 분당 교육훈련부, 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education)
- 등 록 비 30,000원
- 등록마감 주일반 3월 4일(수) / 목요반 3월 8일(주일) 오후 5시 까지
- 문 의 교육훈련부 수지 | 031-270-8182 · 분당 | 031-710-9417

* 3/8(주일), 3/12(목) 첫 강의는 공개강의



한국 피스메이커
Korean Peacemaker Ministries



지구촌교회
GLOBAL MISSION CHURCH



2026 신년기도 세미나 (성막기도, 팔복기도)

“2026 신년기도 세미나”가 이동원 원로목사님을 주강사로 1월 12일(월)~14일(수)까지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성기도의 표본인 ‘성막기도’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레슨으로 기도를 돕는 ‘팔복기도’로 진행되어 세미나에 참석한 약 130여 명의 참석자들이 기도와 깊은 묵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구촌**

지구촌교회 | 변진주

성막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정말 좋았고 삶에서 적용하여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성막을 사진으로 보게 되어 막연했던 성막을 볼 수 있어 신선했습니다. 성막의 9단계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차분하고 편안한 톤의 강의가 저에게 힐링되고 마음과 영성이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강건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오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강건하심과 여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

원천침례교회 | 조선미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팔복 말씀 각 절마다 명 강의를 통해 잘 배웠고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해야 하는 적용점을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책을 펼쳐 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숙소와 식사 간식 등 모든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지구촌**

지구촌교회 | 정해권

2026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1년을 준비하고 무장하고자 신청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의미와 흐름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막 기도를 배움으로써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6년 신년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 실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구촌**

새문안교회 | 김성자

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평안 믿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주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고난과 시련 문제가 많은 인생길에 제가 주의 보혈 아래 있어 보호받고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성막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싶습니다. **지구촌**

시은소교회 | 강희경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막기도 팔복 기도를 통해 보다 깊은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실천해 보고 싶은 동기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의 삶으로 연결되어 말씀의 의미를 기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개인의 기도 생활에 있어 적용하는 것은 물론 성도들과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에 대해, 기도 생활에 대해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은혜로웠고 특히 이동원 목사님의 강의를 매우 깊고 실제적이면서도 깔끔하고 정돈된 것이 좋았습니다. 필그림하우스의 설립 목적에 부합된 세미나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구촌**

인도네시아 동쪽 땅끝에서

전은택, 박희락 선교사 드림



땅끝 사역의 시작

2012년 저희 가족은 지구촌교회의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다섯 살짜리 첫째 희주를 한 손에 잡고, 두 살짜리 둘째 효주를 안은 채 큰 이민용 가방을 끌고 인도네시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막내 태주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양손에 큰 캐리어를 끌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말랑에서 막내 태주를 출산하고, 언어를 배우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은 말랑시 외곽 빈민가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배드민턴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대학에서 언어와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클럽 학생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태풍 스로자가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 동누사통가라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이 지역에서 이만큼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은 없었습니다. 동누사통가라주의 로테섬에서 긴급 구호활동과 태풍으로 날아간 주민들의 지붕을 수리하며 저희 가정의 두 번째 사역이 동남아시아의 동쪽 끝, 인도네시아의 동쪽 땅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누사통가라주의 상황과 필요

동누사통가라주의 1인당 GDP는 1,500달러 미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매년 3개월간, 옛날 한국의 보릿고개와 같은 배고픔의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많습니다. 학교와 선생님들도 많이 부족하며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중등교육을 받은 주민은 인도네시아 평균인 80%의 절반 수준인 40% 미만입니다. 의료환경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누사통가라주 주민들의 종교는 가톨릭 55%, 개신교 35%, 이슬람 10% 정도입니다. 1960년대

에 부흥을 경험했지만 원주민들의 관습·전통과 섞이며 형성된 종교 혼합주의, 조상숭배를 포함한 애니미즘, 그리고 기독교 가정, 기독교 종족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동누사통가라주의 이와 같은 상황과 필요를 보며 티모르섬, 로테섬, 플로레스섬에서 구제사역, 우물굴착, 산간벽지 학교지원, 교회사역 등을 하며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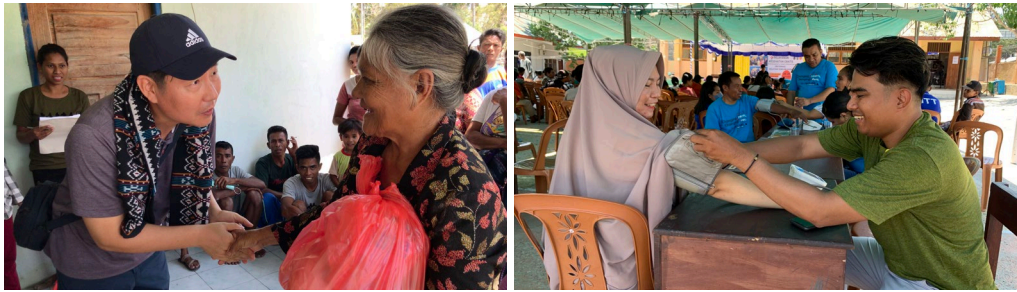
동누사통가라주에서 구제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좋은 접촉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마을의 구제사역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로테섬의 오케네카 마을에서 동역하고 있는 메삭 목사님은 구제를 접촉점으로 마을의 가정들을 열심히 심방합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후속 양육을 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플로레스섬의 동플로레스군은 개신교인이 1% 미만인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와 무슬림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화산폭발 이재민 구제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고, 많은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여러 명이 결신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립기술 전달

티모르섬의 중남부 지역은 대부분이 산간지역입니다. 이 산간벽지에는 학교와 선생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학생들은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서 몇 시간씩 산길을 걸어서 학교에 다닙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의 현지 교사들과 함께 티모르섬 산간벽지 학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족한 중·고등학교들에서 영어, 수학, 인니어 등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학교에 다닙니다.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자립기술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하기 쉬운 바나나, 고구마, 옥수수를 기름에 튀긴 후 초콜릿, 치즈, 발라도(매운 맛) 소스를 입히고, 먹기 좋게 포장을 하고, 예쁜 학교 라벨을 붙여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간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현재 오에레온, 라누 마을의 학생들은 배운 대로 열심히 바나나 칩, 고구마칩, 팝콘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 학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는 이 자립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바나나, 고구마,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옆 야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MET

매년 지구촌교회의 MET은 동누사통가라주의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구제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독거노인, 환우, 실직자에게 생필품을 나눴습니다. 주민초청집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나눴습니다. 의료선교팀은 두 차례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헌신적으로 진료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위로와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아플 때 수술사를 찾아가던 사람들이 의료선교팀의 사역을 계기로 보건소와 약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누사통가라주의 주도인 쿠팡의 보건국장님이 의료선교팀의 진료현장을 방문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의료선교팀이 진료한 주민들의 후속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금까지 동누사통가라주의 사역은 지역교회, 현지 친구들과의 동역으로 가능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동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교회, 현지 교육재단, 마을 지도자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사역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역에서 한걸음 더 내딛으려 합니다. 로테섬 지역교회와 함께 아웃리치를 준비해서 취약지역 주민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티모르섬 쿠팡의 현지 교육재단과 함께 영어, 컴퓨터,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여 현지 중·고등

학생들의 실제적인 교육의 필요를 지원하는 센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현지 중·고등학교에서 교실을 대여해 학생들을 교육할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에서 교사들을 선발, 프로그램과 교재 준비, 중고 노트북들을 확보하는 등의 센터 개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내년에는 티모르섬 쿠팡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센터가 개설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차 쿠팡의 선교센터가 티모르섬, 로테섬, 플로레스섬, 사부섬 등 동누사통가라주의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신실하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울러, 저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며 함께해 주신 모든 지구촌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 기도제목 †

1. 플로레스섬 화산 이재민 구호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2. 로테섬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아웃리치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3. 동누사통가라주의 관문도시인 쿠팡에 영어·컴퓨터·한국어 교실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실제 필요를 지원하고, 티모르섬·로테섬·플로레스섬 등의 선교를 위한 센터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4. 고3 수험생인 첫째 희주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해 주시도록

사순절(四旬節)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간의 동행

사순절(四旬節) 주님이 겪으신 수난을 몸과 마음에 되새기는 40일의 시간
2026년 2월 18일(수) - 4월 2일(목)

매년 봄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로 시작됩니다. 봄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움트는 새 생명으로 인해 다소 들뜬 마음을 갖기 마련이지만, 사순절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도 차분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절기입니다.

1. 사순절(四旬節)이란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40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금식했던 40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 속에서 “고난과 영적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여정을 마음 깊이 새기며 40일간의 영적인 재각성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2.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의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와 신앙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주의 만찬에 앞서 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만찬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살을 찢으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마음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래는 믿음의 선조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힘써 행했던 훈련의 일부입니다.

목장과 가정에서 함께 실천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새겨봅시다.

① 금식기도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정과 목장에서 금식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감당하신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② 구제와 선행 베풀기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선행은 범죄한 인류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가정과 목장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은 도움의 손길을 전해 봅시다.

③ 지구촌공동체 성경읽기 참여하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대속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온가족, 온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매일의 묵상을 이어가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까이 감내하신 고난의 여정을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양의 시간으로 사순절을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힐링복지구독서비스와 함께해 주세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어? 어제 둔 음료가 왜 그대로 있지?”

매일 아침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건강음료 배달 매니저’ 조희정(가명) 매니저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현관 문고리에 걸어 둔 주머니가 하루가 꼬박 지났는데도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년 넘게 매일 찾아보며 어르신의 일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인기척 없는 문 너머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기를 붙들어도 돌아오는 것은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다음 배달 일정이 있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복지관에 급히 상황을 공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소보다 서둘러 어르신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 앞에 다가선 순간,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거짓말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무사한 어르신을 뵈는 순간, 조희정 매니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꼼짝을 못 했어… 밖에서 선생님이 문 두드리고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나갈 수가 있어야지. 미안하…….”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매니저의 손을 꼭 잡은 어르신은 눈가가 축축히 젖어 들었습니다.

“누가 나 잘못됐을까 봐 그렇게 문 두드리려 주고 걱정해 주나 싶어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선생님 덕분에 내가 안심하고 살아. 정말 고마워.”

주섬주섬 챙겨 오신 간식을 건네는 투박한 손길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와 준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전해졌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매니저의 눈시울도 함께 붉어졌습니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힐링복지구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을 찾아뵙는 ‘만남의 고리’, 수거되지 않은 음료를 보며 문을 두드리는 ‘관심의 고리’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고 지역 주민이 어르신을 살피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닫힌 문 뒤에서 우리의 인기척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골목골목 사랑을 배달하며 이웃의 안녕을 살피는 이 귀한 사역 위에, 그리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도록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힐링복지구독서비스란?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60명에게 제공되는 정기 구독서비스입니다. 어르신이 희망하는 ‘건강음료, 원예, 식재료, 아·미용’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상점과 연계하여 제공하며, 정기적인 방문과 소통을 통해 굳건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 가정, 헤븐 패밀리



전희형A 집사

분당5지구 J직장C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아멘!

헤븐 패밀리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무연고 아동들과 결연을 하여 월 1회 가정 체험을 제공하는 우리 교회의 보육사역입니다. 주보 광고를 본 남편의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부족한 마음에 선불리 결연을 하였다가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입양의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에 한 달 정도 기도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광고가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고 가정체험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이 마음 쓰여, 한번 알아나 보자는 생각으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연이 맺어지기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사전교육과 보육원 원장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들은 강의 내용이 저의 우려를 도전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자라 자립청년이 되었을 때 믿고 상담할 어른들이 없어 국가에서 받는 자립지원금을 많이 사기당하고 보육원 선배들을 따라 범죄의 길로 들어서기 쉽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선택을 하며 독립해야 할 시기에 멘토가 되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정을 경험하지 못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혼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전 7살이던 시후를 만났는데 벌써 3학년이 됩니다. 시후는 정말 해맑고 순수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루 지내고, 또는 1박 하고 돌아갈 때도 헤어질 때가 되면 처음 걱정과 다르게 “이모 저 갈게요!!”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웃으며 보육원으로 뛰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 시후를 보며 보육원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구나라는 안도감에 감사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후가 아빠에게 배워야 할 것들, 자전거나 스케이트, 인라인 등을 가르쳐 주거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생일파티도 하고, 집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며 정말 소소하게 평범한 일상을 경험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 중고등 형들이 수학 공부도 도와주고 축구를 가르쳐 주기도 하며 가정체험을 하는 날은 아들이 셋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시후는 어린 마음에도 “저는 결혼은 못 할 것 같아요. 저를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럴 때면 저희 부부는 “시후는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어른이 되면 삼촌보다 키도 더 크고, 시후처럼 예쁜 아들 낳아서 자상하고 친절한 아빠가 될 수 있어”라며 시후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후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며 바른길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시후를 보며, 하나님께 입양되어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매년 느끼고, 자격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떼쓰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던 제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양자 되어 누리는 은혜를 시후에게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시후가 그 사랑을 경험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청년으로 자라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고 시후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에게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꿈을 함께 꾸도록 소망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보에 또 헤븐 패밀리 광고가 나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작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구촌**

피스메이커

용서를 배운 시간

이종혜 | 37기 목요반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제 마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도 있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업을 들으면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피스메이커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는 단순했지만,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숙제도 있었고, 생각보다 이론은 어려웠습니다. 매주 해야 하는 숙제는 이해되는 듯하면서도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장님들과 함께 한 주 한 주 과제를 이야기하며 고치는 과정을 지나면서, 저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갈등 사례 속에서 제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사과해야 할 대상과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스메이커 수업은 제 잘못을 깨닫게 하였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내내 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부끄러웠고, 딸에게, 또 동생에게 저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책을 읽으며 '용서 구함'이 저의 삶 가운데 계속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 구함의 훈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지구촌**

매달 첫째 주에 발행되는 월간 선교잡지 《지구촌비전》에는 여러 분야의 귀한 글들이 실려 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은 늘 정독하는 편인데, 작년 9월호 《지구촌비전》에서 ‘성경적인 갈등 원리, 피스메이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와 자세히 읽어 보게 되었다. 글의 말미에 실린 “피스메이커는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하는 강의임을 확신한다”라는 강한 어조의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다. 호기심도 생겼다. 평소 갈등관리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 오던 터라 이번 교회의 가을학기 피스메이커 프로그램을 꼭 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금년은 개인적으로 결혼 4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결혼 이후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살아오면서 겪은 크고 작은 갈등과 위기의 시간이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는 후회의 감정이 가슴 깊이 밀려온다. 실제로 교육을 받는 중에 부부 간 갈등 사례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다.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글로 옮기고 다시 읽어 보니,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포용력이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피스메이커의 4가지 원리 중 첫 번째인 G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구절은,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원리처럼 느껴져 마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반면 G2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라는 원리는, 내가 평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 노력했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의미와도 닮아 있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만일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원리를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을 것이다.

갈등이라는 상황은 나 혼자만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는 삶의 질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번 피스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화평케 하는 자의 4가지 원리를 배우며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교양이나 지식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보완하고 다듬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게 되었다.

어느 권사님이 《지구촌비전》에 기고하신 글처럼, 지구촌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야 하는 필수 강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에 나 또한 전적으로 공감하며 확신한다. **지구촌**

아프니? 나도 아프다

오행일 장로

수지 7지구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물든 뒷산에 갔다. 반려견 설이와 산책하며 얘기 나누었던 길가엔 저물어 가는 가을 단풍이 곱고, 철 지난 단풍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산책 길에 뺨친 나뭇가지들을 정리해 주려던 참이었다. 한참을 정리 중일 때 까마귀 두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 까악까악 소리친다. 나는 “왜 그러는데...” 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 전동 가위에 왼손 엄지 손가락 끝이 잘려 나간 것이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했고 손끝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졌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아니 이런 일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은 말하고 있었다. 더 크게 다치지 않고 손끝만 잘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친 손을 움켜쥐고 달려가 미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쳤어. 응급실에 가야돼!” 영접팀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놀란 아내를 앞세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이곳에서는 수술이 어려우니 가까운 지정 전문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했다. 다행히 가까운 전문 절단봉합수술 병원으로 가서 수술이 곧바로 진행되었다. 8시간의 마취, 3시간의 수술이라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절단된 손끝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하는 미세혈관 봉합술이다. 3시간이 지나자 수술은 기도 속에서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다. 팔은 마취가 아직 안 풀리어 남의 손처럼 흐느적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진 손가락을 다시 붙여 주셨군요.”

봉합수술된 손끝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간병인은 피를 계속 닦아 내고 간호사는 손끝의 혈색과 혈압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내는 측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채 연신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오른손엔 링거주머니가 4개나 걸리고 왼손은 절대 안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움짱달짝 못하는 실험실의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닫는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병실에 가두는 것일까? 이 손가락 끝 한 조

각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몸의 어느 한 조각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온전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프니?” 말씀하신다. “나도 아프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널 이토록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을 아니? “오, 하나님!”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린다. 열 손가락 중 한 손가락이 다쳤다고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밤낮으로 간병인과 간호사, 의사, 아내가 돌보게 하시고 또 목장에서, 영접실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나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왜 이리 지혜가 부족한지요. 저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요.”

그동안 아내가 던진 말들이 크게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린다. 2주간의 입원 동안 아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주시려는 것이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온통 나, 가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네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너의 두 손, 두 발, 두 귀, 자녀, 부부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든지 아니? 서로 도우라는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다. 너는 지금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이런 상태인데 한 손이 없으면 한쪽 발이 없으면, 부부 중 한 명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장애를 갖거나 고아가 되는 것이다.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니 서로 도와 선을 이루라는 것이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 넌 주기보다 받기만 하고 고마운 줄 모르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진 않았니? 네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어 보렴. 넌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랑의 구두쇠야.

하나님의 강권으로 입원시키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 너를 멈추어 너를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려한 것이다. 짧지만 길었던 2주간의 멈춤 속에서 넌 나를 보고 난 너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주었으니 기뻐하라 찬만하라.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 사랑한다 사는 동안 영원을 사모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근심케 하지 말라.

병원 밖 창가엔 그 형형색색으로 아름답던 단풍들이 메말라 겨울로 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한 것처럼 새롭다.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상, 나와 의 깊은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한 시간이었다. 나를 멈추고 나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주한 시간, 병상은 내게 브니엘이었다.

한 달 만에 교회에 나가 인사도 하고 영접실 봉사도 하며 기쁨을 마주한다. 그리고 김우준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

“고난은 성숙을 위한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훈계하며, 책임을 다하라고 내게 말한다.

아프니? 나도 아프다! 가슴에 크게 울린다.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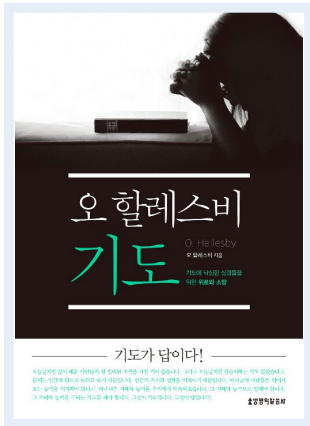
2026 영구제직 신년하례회

1월 13일(화) 저녁 7시, 영구제직 신년하례회가 분당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1부는 7층 만남의 광장에서 다과 및 교제로 진행되었고, 2부는 8층 분당에서 영구제직 회장단 소개 및 인사, 이어 김우준 담임목사님의 격려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의 시간과 기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촌**

오 할레스비 『오 할레스비 기도』

편집실



김우준 담임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소개해 주신 O. 할레스비의 『오 할레스비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험한 이 세상을 인간 개인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며, 인간의 능력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저자인 O. 할레스비(1898-1961)는 바로 이 ‘무력함’에서 출발하여 주님과와의 진실한 대화인 ‘기도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 책에서 담담하게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할레스비의

Prayer(1931)는 『영의 기도』 등의 제목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자신의 목적 관철을 위하여, 더 나아가 심지어는 이기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곧 실망하기도 합니다. 할레스비는 이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간절히 맡기는 기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 ‘그리스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 할레스비 기도』는 이처럼 기도의 의미와 자세, 잘못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영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 등, 기도와 관련된 풀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기도만이 아닌, 주님을 진정 영화롭게 해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MF(지역교회) 노르웨이 신학교 교수로 봉직했던 할레스비는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나치 정권에 저항했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지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설파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왜 나는 기독교인인가』, 『종교적인가, 기독교적인가』 등의 저서도 한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평생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 할레스비의 조언을 통해 기도로 주님께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세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지구촌**

1년은 365일 :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차동혁 장로

분당 9지구

계절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22). 이 말씀은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반복적인 질서를 약속하셨습니다.

1년은 365.2422일

지구는 스스로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전’ 운동과,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 운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고,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인 1년을 365일이라 말하지만, 정확한 값은 약 365.2422일입니다. 이 미세한 값의 차이가 역사 속에서 달력의 변화를 가져온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BC46년 : 1년이 무려 445일이었던 혼란의 시기

초기 로마는 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력의 오차가 누적되어 BC50년 경에는 실제 계절과 달력의 날짜가 무려 80일(약 3달)정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에 로마의 통치자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는 BC46년에 달력을 양력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서 계절과 달력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 그 해에 윤달을 모두 3개(80일)나 넣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BC46년은 1년이 15달, 총 445일이라는 기나긴 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이 겪었을 사회적 혼란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달력, 율리우스력과 가이사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도입한 율리우스력은 1년은 365일로 하되, 4년마다 한번 씩 366일인 윤년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1년은 365.25일이 되어 실제의 공전주기와 거의 흡사해집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로마는 이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호적령' 사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가이사 아우구스토(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황제가 내린 이 명령은 고향으로 인구 이동을 촉발시켜, 아버지에 이어 또 한번 사회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혼란은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성경(미가서 5:2)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의 달력, 그레고리력 : 1년은 365.2425일

율리우스력은 매우 훌륭했지만, 실제 1년과의 차이(0.0078일)가 수세기에 걸쳐 누적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입 후 약 1,600년이 흐르자 실제 날짜와 달력이 12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고, 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날짜 산정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582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13세는 율리우스력을 개선한 그레고리력을 도입합니다. 이 달력은 1년은 365일로 하고, 4년마다 윤년을 두되,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평년,

다시 400으로 나누어지면 다시 윤년으로 합니다. (예: 1900년은 평년, 2000년은 윤년). 이 방식에 따르면 1년은 365.2425일이 되며, 약 3,000년에 단 하루의 오차만 발생하는 정밀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달력입니다.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노력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라는 변함없는 질서를 약속하셨고, 인간은 그 신비로운 질서를 발견하고 기록하기 위해 수천 년간 달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조차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화마저도 거대한 창조 질서의 흐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우주의 신비를 하나둘 벗겨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33). **지구촌**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

김영관 장로 | 분당6지구



금년 첫 주일예배 광고 영상으로 위 제목의 책이 1월의 추천 도서로 소개되었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인 김영생 집사는 나와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사내 선교회 임원으로 여러 해 동안 함께 사역을 담당했으며, 누구보다 저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전 김 집사로부터 책을 냈다는 카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책을 출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선정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순간 머리에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떻게 자신의 책이 지구촌교회 추천 도서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반가워했다.

우리는 행원 시절부터 각자의 직장선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금융기관 연합선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김 집사는 한일은행 기독교선교회에서 제자훈련 중심으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나는 상업은행 기독교선교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둘은 금융기관 연합선교회 예배 때 만나서 교제하며 지냈고, 직장인 성경공부(BBB)에도 관여하였다. IMF 시절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 은행은 통폐합되었고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후에 우리은행으로 행명이 바뀌게 되었다. 각자의 선교회가 만나 통합 우리은행 선교회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는데 김 집사는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담당하며 본점 목요일예배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나는 은행 전체 선교회 조직을 지원하며 매월 예배를 드리는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덕분에 김 집사와는 매주 혹은 매월 정례예배 때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더욱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는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다. 책에서도 소개되었듯이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장남 정함이가 있다. 가정에서는 중환자를 돌봐야 하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혀 여유가 있을 리 없는 환경에서 그는 선교활동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회에 막발을 디딘 기독교인들이 세상 물정에 빠질까 봐 신입 행원들에게 더욱 심혈을 기울여 선교 활동에 매진했다. 성경공부반을 조직하고 매주 모임을 통해 확인하고 격려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다. 신앙이 흔들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 상담과 조언을 해 주었다. 그가 지점장 시절에는 아들 정함이가 무의식상태(7년 8개월)로 있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래를 빼 주는 일과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움직여 주는 일, 대소변 받아내는 일 등, 그야말로 전문 도우미가 해도 어려워하는 일들을 감내해야 했다.

은행을 퇴직하고도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아들 정함이 돌보는 일 때문에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보다 못한 나는, 함께했던 직장선교회 회원들에게 특별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동시에 모금을 통해 병원비 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함을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두실 리는 없어’ 매일 매일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정함을을 고통 없는 천국으로 부르셨다. ‘부르시려면 차라리 일찍 데려가시지 여태껏 병원비에, 병간호 시간에, 모든 청춘을 다 불사르게 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의 아내도 아들 간호하느라 몸이 망가져 있지만 그들 부부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고 있다. 책 제목 그대로 천국을 살고 있다. 그것이 내가 옆에서 지켜본 사실이다.

그가 펴낸 간증집이 많은 영혼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리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이 책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피워 낸 위대한 서사시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며 보여 주고 있다. 그 어떤 간증체험보다도 더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책이다.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지구촌**



양재꽃시장에서
미리 온 봄을 만나요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2월.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이미 봄이 활짝 피어 있는 곳이 있다. 서울 남쪽, 양재동 꽃시장이 바로 그곳이다.

남도의 끝자락에서 매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꽃놀이를 떠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 계절을 앞서 만나고 싶은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양재동 꽃시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꽃의 모든 것이 모이는 곳, 양재꽃시장

양재꽃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 유통 공간이다. 새벽경매가 열리는 화훼공판장을 중심으로, 꽃다발과 꽃꽂이에 쓰이는 절화를 판매하는 절화도매시장, 화분에 심긴 나무와 꽃을 판매하는 분화매장, 꽃다발과 조화를 주로 취급하는



지하꽃시장, 그리고 화분-비료-분갈이 흙 등을 판매하는 자재매장까지 한곳에 모여 있다. 겨울의 끝자락인 요즘은 나무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풍성한 봄꽃을 만날 수 있다.

봄을 가장 먼저 만나는 생화도매시장

2월의 생화도매시장은 '봄의 예고편'과 같다. 튤립, 프리지아, 라넌쿨러스, 아네모네, 히아신스 같은 봄꽃들이 시장을 가득 채운다. 동네 꽃집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어서 큰 비용 부담 없이도 봄을 집으로 들일 수 있다. 2층 건물 가운데 1층은 생화(절화) 매장으로, 경매가 끝

난 새벽부터 도매 판매가 이뤄진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낮 12시면 영업을 마치므로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 방문이 좋다.

코끝은 싱그럽고, 눈은 호강하는 분화매장

분화매장은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대부분의 나무와 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화훼공판장건물 남쪽에 위치한 가동과 나동, 두 개의 매장으로 나뉘어 있다.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지만, 이맘때는 특히 화사한 양란이 눈길을 끈다. 작고 앙증맞은 화분부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상록 관상수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점포별로 가격과 크기가 다르니 여러 매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고르는 것이 요령이다.

화분과 비료는 자재매장에서

분화매장에서 판매되는 꽃과 나무는 경매 직후의 상태 그대로 진열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양란은 비닐 화분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화분이 필요할 때도 있다. 대부분 상인에게 요청하면 옮겨 심어 주지만, 자재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화분을 골라 직접 분갈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화분과 비료, 분갈이 흙이 준비돼 있어 집에서 기르는 식물을 관리하기에도 유용하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꽃다발은 지하꽃시장에서

분화매장 북쪽에는 지하꽃시장이 있다.形形色색의 꽃다발이 상인들의 손길에 따라 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모습도 구경할 수 있다. 원하는 꽃을 골라 나만의 꽃다발을 주문 제작할 수도 있다. 실제 꽃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봄꽃 조화를 만날 수 있다. 벚꽃, 유채꽃, 목련 등 봄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 조화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촬영용으로 인기가 높다.

양재꽃시장을 여행처럼 즐기고 싶다면 오전 방문을 추천한다. 꽃 상태가 가장 좋고, 상인들의 설명도 여유롭다. 작은 화분 한 개, 꽃다발 하나만으로도 2월의 봄기운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크고 무거운 화분도 저렴한 비용으로 배송이 가능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는 2월, 멀리 떠나지 않아도 봄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양재동 꽃시장에서 색과 향으로 채워진 봄 여행을 미리 시작해 보자. **지구촌**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교통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하차 → 지하 연결통로로 꽃시장과 연결
주차	양재꽃시장 내 주차장 이용(주차 공간은 비교적 넉넉한 편)
주차요금	최초 1시간 3,000원, 이후 10분당 500원이며 구매 영수증 제시 시 할인

글·사진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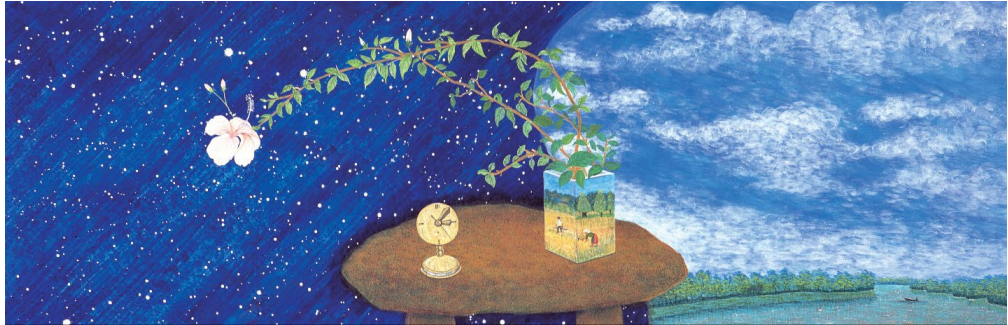
성경적 상담훈련 자기대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대면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 정** 2. 24-5. 26 & 8. 25-11. 24 (매주 화) 총 24주
- 시 간** 오전 10:00 – 낮 12:00
- 등 록 비** 8만원
- 장 소** 실시간 온라인
- 등록마감** 2. 1(주일)까지
(2.1이후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전화 등록 또는 홈페이지 등록(cm.jiguchon.org)
- 문 의** 글로벌상담소 상담교육팀 031-710-5933

2026. 02. 7(토) - 2026. 02. 27(금)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프랑슈아 카페

류광일 작가 -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작품) 추수 70cmx200cm, 석채+분채+장지 2004

생(生)을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인듯하나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시간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가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제한된 시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 생(生)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보따리가~~ 별거벗은 모습으로 절대자의 심판대 앞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린 오늘을 신(神)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별처럼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류광일 Ryu, Kwang-il

개인전 18회

세종뮤지엄갤러리 초대전, 실파칼라 아카데미(다카), 인사아트센터, 공평아트센터, 갤러리상, 컨벤션 센터(LA)

그룹전, 아트페어 다수

세텍, 예술의전당, 서울아트쇼(코엑스), 2018 ABLE FINE Art NY Gallery

현재 춘추회, 한국화 여성작가회, 한국화 진흥회 회원

E-mail : ryukwangil@hotmail.com



제철에 맞는 시금치의 단맛과 새우의 감칠맛이 매력적인 ‘시금치 새우 오일 파스타’

재료

파스타 면 (1인분 약100g), 시금치 50g, 새우 5-6마리, 올리브오일, 소금, 굴소스 또는 액상치킨스톡, 버터 10g, 다진마늘 10g, 토마토 3개

레시피

1. 시금치는 밑동을 자르고 깨끗하게 세척해 준비하고 토마토는 세로방향 절반으로 잘라 주세요. 파스타 면은 미리 삶아 두세요.
2. 팬 바닥면에 올리브 오일이 가득 깔리도록 충분한 양의 오일을 둘러 주세요.
3. 중약불로 켜고 다진마늘을 넣어 살짝 노릇할 때까지 볶아 주세요.
4. 버터, 새우, 시금치, 토마토를 넣고 볶아 주세요. (새우가 붉게 변하고 시금치는 숨이 꼭 죽으면 돼요)
5. 삶아 둔 파스타 면을 넣고 소금으로 최종 간의 80% 정도의 심심한 간을 맞춘 후 굴소스 또는 액상치킨스톡을 아주 약간씩 넣어 가며 부족한 간을 더해서 원하는 정도로 맞춰 주세요.
6. 기호에 따라 후추를 뿌려 드세요.



조각으로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과 걷는 그 모든 여정에는 은혜 조각을 꼭 주신다.

그런데 너무도 작은 조각일 때가 많아서
마치 엄청나게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만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때로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아득하고
가끔은 이 그림이 완성될까 하지만

주신 조각들을 묵묵히 품고 있으라고 하신다.
받은 은혜의 조각이 모여 반드시 그림이 된다고,
이미 준비되었으나 다만 아직 형태로 보이지 않는 거라고,

지금도 가만히, 깊이, 성실히 그리고 계신다고 하신다.
완전하게 그려질 그림이 있다고 하신다.
은혜의 조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완성된다고 하신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5). **지구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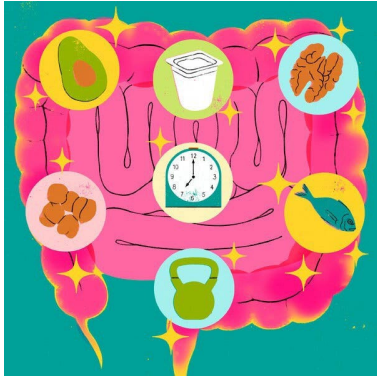


이단비 목사 청년1지구 여호수아촌 빛진자목장

도서 '최강의 레시피'(저자 데이브아스프리) 전체 감수&비주얼디렉팅 / AK플라자 제철식재료
레시피 연재(레시피&사진&영상) / '곤트란쉐리에' 브런치 메뉴개발
인스타그램 foodstylistdanb 이메일 danbione1@naver.com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7가지 방법

최신 유행을 타는 장 건강 영양제나 장을 청소한다고 광고하는 상품 따위는 잊으세요. 전문가들이 검증한 이 유용한 방법들은 규칙적인 배변 활동과 장기적인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우리 몸 내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인터넷 상에서 많은 참여자들 간에 콘텐츠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SNS에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완화시킨다는 방법들, 장내(場內) 미생물 과학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물질, 그리고 다이어트 등에 관련된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카일 스탈러(Kyle Staller) 박사는 최근 장 건강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장 건강에 좋은 습관은 역류 증상(reflux)과 변비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일부 암과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많은 건강 관련 팁과 비법들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스탈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이섬유 섭취를 중요시하십시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이섬유가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앨버타대학교의 영양 연구원인 아니사 아르멧(Ansa Armet) 박사는 식이섬유 체내 섭취량을 늘리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샐러드에 병아리콩을 넣고, 칠리나 파스타 소스에 들어가는 육류



의 일부를 렌틸콩으로 대체하고, 수프, 카레, 스투에 하얀색 콩(흰 강낭콩)을 갈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 씨앗(chia seed), 아마 씨앗(flax seed), 밀기울, 차전자피(psyllium husk)와 그 밖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들을 섞은 것을 요구르트, 시리얼, 샐러드, 수프에 뿌려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과일과 채소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즈베리(붉은색 산딸기 열매), 사과, 배, 완두콩, 아보카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때때로, 식단에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추가하기 시작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느린 속도로 시작하라'고 아르멧 박사는 말했습니다.

2. 발효 식품을 섭취하세요

요구르트, 케피어(kefir, 유산균과 효모가 혼합된 '케피어 그레인'으로 우유, 양유, 염소유 등을 발효시켜 만든 코카시안 산악지대 유래의 발효유), 콤포차, 된장, 사우어크라우트(잘게 썬 양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독일 요리), 김치 등 발효 식품은 장내에 유익균을 공급해 줍니다. 스탠포드의과대학의 연구영양사인 달리아 페



렐만(Dalia Pereman) 씨는 이러한 식품에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화합물도 또한 함유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렐만 씨는 샐러드, 샌드위치 또는 계란에 사워크라우트 한 스푼, 김치 또는 다른 발효 채소를 곁들여 먹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어찌면 꿀, 메이플 시럽 또는 과일을 약간 넣어 단맛을 더한 케피어를 마시거나 플레인 요구르트를 먹는 것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세요

과학자들은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허브를 강조하는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에 좋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스탤러 박사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이 특정한 장 질환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실시된 두 건의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연구자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는 임상 참여자들이 4주 또는 6주 동안 지중해식 식단을 채택했을 때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와 같은 증상이 개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탈러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2025년 출판한 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단이 만성 변비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규칙적인 수면 및 아침 식사 습관을 유지하세요



스탈러 박사는 우리의 장은 뇌처럼 하루 생체 리듬(일주기 리듬, circadian rhythm)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장이 조용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장이 수축하기 시작하고 음식물을 이동시킵니다.”

수면 패턴에 일관성이 없다면, 즉 통상적으로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 역류 증상 같은 장 질환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미시간대학교 대학병원의 장 질환을 전문가인 임상 심리학자 메건 리엘(Megan Riehl) 박사는 말했습니다. 일정한 수면 습관을 들이면 장 운동이 더욱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장을 수축하게 하므로,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후 바로 아침 식사를 해도 문제가 없게 도울 수 있다고 리엘 박사는 말했습니다. 스탈러 박사는 커피(디카페인 포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아침 습관은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5.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뉴욕시에 위치한 컬럼비아대학교 어빙 메디컬 센터의 위장병 전문의인 존 나단슨(John Nathanson) 박사는 신체 활동이 소화기관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일어설 때, 중력이 소화기관의 내용물을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소화기관 주변에 진동과 근육 수축이 발생하여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단슨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6. 음주는 삼가야 합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의학 교수인 자스모한 바자즈(Jasmoan Bajaj) 박사는 알코올 섭취량이 적을수록 장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음주가 위산 역류, 가스, 복부 팽만감, 변비 및 설사를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으며, 장 출혈, 대장암, 그리고 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장 누수 증후군(leaky gut syndrome)’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자즈 박사는 폭음(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약 2시간 내에 4잔 이상, 남성의 경우 5잔 이상) 한 번만으로도 장 점막이 손상되어 미생물 독소가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손상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대장암 검사를 받으세요



중 3위를 차지합니다.)

나단슨 박사는 대장암 검진이 장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들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암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 사망 원인이며, 20대, 30대, 40대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전체 암 사망의 원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45세부터 대변 검사(분변 잠혈 검사) 키트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검진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고 나단슨 박사는 말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에서 악성 종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전암성(前癌性) 병변(용종)을 발견하고 의사가 검사 중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변 습관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나단슨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구촌**

지구촌교회 목회 철학

²³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²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²⁵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²⁶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²⁷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²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²⁹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23-29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복음의 일꾼'이요, 동시에 '교회의 일꾼'입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역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지역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일(전도)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성숙한)자로 세우는 일(양육)입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장은 ①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전파(선포)하는 예배의 장과 ② 치유와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한 목장의 장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들 사역자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합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 지구촌교회 정기집회 안내

수지채플		구분	분당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08:00	본당(4층)	1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2부 예배	10:00	
12:00		3부 예배	12:00	
14:00		더함예배 장년/청년2/통일비전	14:00	
16:00		홀리웨이브예배 (대학/청년1)	16:00	
05:30	본당(4층)	새벽기도회 (월-토)	05:30	그레이스홀(로비층)
11:30		수요예배 (수)	11:30	본당(8층)
	파워웬즈데이예배 (수)	20:00		
20:30	본당(4층)	금요심야기도회 (금)	20:30	
10:00		시니어예배 (금)	10:00	

● 교육목장 주일예배

10:00 12:00	111호	영아촌 0세-36개월 (부모 동반)	10:00 12:00	702호
	110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0호	미취학 연합촌 4세-7세	14:00	701호
10:00 12:00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0호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207호	소년촌 초5-초6		712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10:00	202호	중등마을 중2-중3	10:00	206호
	310호			210호
12:00	310호	중1-중3	12:00	206호
10:00 12:00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0:00 12:00	412호
				209호

● 장애인을 위한 주일예배

12:00	202호	아름예배 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동행 예배	12:00	102호(L층)
		수어 예배	10:00	102호(L층)
			14:00	본당(8층)

● 글로벌목장 주일예배

*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	장년	10:00	선교센터 (MD프라자)	올네이션스홀 (B1층)
		청년	14:00		다니엘홀(701호)
		청소년	10:00		글로벌아홀(8층)
		어린이			햇빛마당홀(B1층)
	미취학	14:00	소피아홀(8층)		
	일본어 예배		햇빛마당홀(B1층)		
	일본어 주일학교		소피아홀(8층)		
	중국어 예배	10:00	703호		
	중국어 주일학교	11:30	에스겔홀(7층)		
	몽골어 예배	10:00	703호		
	몽골어 주일학교		글로벌아홀(8층)		
	이주자 예배	14:00	에버라인 삼가역 1번 출구		
	처인구 영어 장년 예배	13:30			
처인구 몽골어 예배	15:30				

● 분당채플 3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분	경기대채플		필그림하우스		구리지구촌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1부 예배					08:00	
2부 예배	10:00		09:20	갯세마네채플	10:00	5층, 본당
3부 예배	12:00	텔러컨벤션센터	11:00	카리타스채플	12:00	
4부 (젊은이) 예배					14:20	
청소년 예배	10:00 12:00	복지관B207호			10:00	6층, 615호
어린이 예배		복지관B206호			12:00	6층, 614호
미취학 예배		복지관B202호			12:00	6층, 616호
수요예배			19:00	갯세마네채플		
금요심야기도회					20:30	5층, 본당
새벽기도					05:30	
토요기도회			19:00	갯세마네채플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GMN채플 예배는 현장예배 회복으로 분당채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들마로 52(MD프라자)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74번길 19(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 팩스 031-710-59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iguchon.or.kr)의

- 1 우측 중앙 지구촌비전 아이콘 선택 후
- 2 원고접수 게시판에
- 3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 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 보기 설정 필요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건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kr)를 통해서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08:00, 10:00, 12:00, 14:00, 16:00
수요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30



◀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www.jiguchon.or.kr www.goodtv.co.kr	라디오	• '생명은 빛으로'(서울극동방송 FM106.9) 목요일 오전 9:20-9:5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lovejiguchon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6:00 비전메시지, 화 오전 6:00 생명의 말씀 • CGN 화 오후 2:20(영어자막) • CBS 토 오전 6:30 • GoodTV 주일 오후 2:30

해외동역교회		
니이카타지구촌교회	639-2, Mako, Nishi-Ku, Nagata-Shi, Nagata, Japan	+81-25-201-8122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okyo-to, Shinjuku-ku, Hyakuninchi, 1 Chome-9-3, Japan	0574-86987477
상해지구촌교회	中國 上海市闵行区 宜山路 2328弄 30号 903室	+86-186-2172-9613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 Zealand	+64-27-414-2777
호치민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7, HCMC, Vietnam	+84-8-2211-9951-2
오克兰지구촌교회	97 Onewa Road, Northcote, Auckland, New Zealand	+64-9-216-1177
닝보교회	1-11902, 338, ringhuang-Road, Yinzhou-district, Ningbo-city, Zhejiang-Province, China	0574-86987477
동역교회		
고덕지구촌교회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15층	031-647-0110
기흥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운로 217 (자곡동 456-2)	031-283-7991
글로벌지구촌교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57 스키아일랜드빌딩 3.4층	061-332-0191
대우지구촌교회	서울 송파구 오금로 432 삼현상가 3층	02-431-6458
대리야지구촌교회	동탄채플 경기 화성시 동탄신호동 동탄신호대로 263번길 풍산맨션인티워 7층 광고채플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영덕동 986-8)	031-212-2291
대불래상처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7번길 45 5층	070-7699-9191
동백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13(중동 847), 삼성타워 9층	031-693-8291
동탄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원곡매로 168-1(중동 44-4번지)	031-8003-8253
관음지구촌교회	경기 화성시 동탄 신민천로 414, 경서타워 7층	031-375-8891
만방생 목장교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1 덕운프라자 2층 202호	031-896-0300
민들레지구촌교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종백대로 448번길 96. 4층	070-7757-1201
세움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그네로 53번길 27-24(사천동 397-20)	031-205-1191
신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3길 107	031-376-3055
영랑지구촌교회	서울 강동구 상암로61길 32 1층	010-2555-4642
은시랑지구촌교회	경기 광주시 오포읍 창철왕길6번길 8 (능평리)	070-4119-5941

죽전지구촌교회		
죽전지구촌교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49 씨티프라자 7.8층(보정동 1208-2)	031-896-7070
협력교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뉴저지 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늘기교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214	031-978-0121
더사랑지구촌교회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40	051-415-0831
동안교회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42 이라프프라자 4층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9	02-2647-0191
베이커스필드 지구촌교회	25 Gamsey Ave. Bakersfield CA, 93309	(346) 317-8766
세종지구촌교회	세종 장군면 대교길 117-15	044-862-1441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시목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3길 32 시목교회	043-269-1941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404-579-4570
영주침례교회	경북 영주시 명림길 38 영주침례교회	054-634-2004
예일교회	부산 금정구 중리대로 2008	051-518-4189
워싱턴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301-460-1656
원주 온누리침례교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50-11	033-748-0032
천안 지구촌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길, 201호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99	033-254-4059
함흥교회	14100 Parke Long Ct. Suite K. Chantilly, VA 20151	(571) 719-2592

봄을 기다리며

최영걸 | 지구촌 갤러리 사역단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10).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상황과 가시밭길 같은 때를 만나곤 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마다 사람을 또는 돈과 권력 등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극복하려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신다.

추운 겨울도 때가 되면 봄날의 따스함을 맞이하며 만물이 소생하듯, 인생의 추운 겨울 같은 어려운 일이나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반드시 봄날의 따스한 햇살 같은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며 더 큰 목소리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 **지구촌**

보 지구촌평생교육원 학기 회원모집

신청기간 : 2026. 2. 2(월) ~ 2. 23(월)

강의기간 : 2026. 3. 3(화) ~ 5. 29(금)

01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홈페이지/모바일)
<https://gmcedu.org>
방문접수 : 사전연락 후 가능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
지구촌교회 1층 107호

02 상담문의

전화: 031-710-9313, 9317~18
카카오톡:  지구촌평생교육원 
친구추가 후 1:1 채팅
운영시간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03 바로가기

